

노관규 순천시장, MZ세대 공무원과 소통의 장 열어

낭트 씬터서 첫 번째 '징검다리 토크' 개최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만 낭트 씬터에서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징검다리 토크'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

35세 이하 공무원 중에 무작위로 선별된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징검다리 토크'는 '일류순천의 힘은 공무원으로부터'라는 모토 아래, 도시의 실행력은 공무원에게 있으며, 이들이 곧 미래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징검다리 토크'는 형식의 제한 없이 자기소개로 시작했으며, 노관규 시장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서로 간 평가의 잣대보다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존중과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시장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면서 참여 공무원의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노 시장은 "실력과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무원의 자존감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 상을 주문했다.

이날 징검다리 토크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시장님을 처음 뵈는 자리여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유머도 많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 있는 '낭트 씬터'는 순천시와 프랑스 낭트시간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낭트시에서 낭트의 전통 목선인 빨래배를 순천시에 기증하고 낭트시의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지난 2009년에 조성했다.

/오승택 기자

여수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 선정

우두 보건지소 신축·죽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우두 건강증진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죽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여수시는 '우두 건강증진보건지소 신축사업'에 9억 3천만 원, '죽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사업'에 11억 6천만 원 등 총 20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건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우두 건강증진보건지소'는 제반 여건이 열악한 돌산읍 취락계층과 고령층을 위해 기존 진료사업(의과, 한의과)과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기본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치매

관리사업을 특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죽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소라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기본으로, 임신·영양·아동 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특화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라면 죽림리 일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장소,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만드는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돌산과 소라 지역 주민에게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농어촌 보건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더욱 건강한 여수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곡성군, 초중학교 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비대면교육 홍보

곡성군이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비대면 교육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주소체계 고도화,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국가지점번호 카드 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달라지고 있는 주소 체계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으로 확대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과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경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고 각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가 도로명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곡성군은 지역 내 6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담당 교사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저학년부터 고학년 학생들까지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곡성군은 추후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일규 기자



광양시 중마동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3개 사회단체 회원과 함께 사랑병원 인근(23호 광장)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중마동 3개 사회단체, 클린데이 활동

광양시 중마동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3개 사회단체 회원과 함께 사랑병원 인근(23호 광장)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가야봉사단(회장 김용만), 포스코 하사모 봉사단(회장 오승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류이식) 등 3개 사회단체 회원들과 중마동사무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랑병원과 호반아파트 일원의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으며,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 백성호 부의장, 신용식 의원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클린데이 활동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각 사회단체 회장들은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중마동장은 "사회단체의

솔선수범하는 봉사활동이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중마동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마동은 지역 사회단체 등과 월 2회 이상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사회단체에 공공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택 기자

구례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시행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전기승용 20대 추가 보급

구례군은 2억9천7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20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자격 조건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소를 둔 주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3차로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는 우선순위에(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 물량 2대를 포함해 총 20대 보급하며, 구매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526만 원에서 최대 1,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군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으로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3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4개소 22기, 완속충전기 24개소 37기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건식 기자

Sunshine GWANGYANG

행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관광도시 광양
관광코드로 방문하세요
gr.gwangyang.go.kr

광양시